전통서화 본고장 명맥 잇고 지방사 기록물 발굴

호남의 기록문화유산 ② 고서화·지방지

고서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고장을 다녀간 외지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호남에서는 음식점이나 다방 그 어딜 가도 그림 한두 점 걸리지 않은 곳이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 그다지 여유로운 살림이 아니더라도 병풍 글씨 한 두 벌과 서화 몇 점 정도는 소장한 집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만큼 서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서화가 또한 어느 지역보다 많았고 또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곳보다 호남은 20세기까지도 서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많은 화가들을 배출하여 전통서화의 맥을 이어온 고장이다. 조선 숙종대의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1668~1715)와 19세기의 소치(小癡) 허련(許鍊·1809~1892),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1841~1910) 등은 그 각각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중요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근대기에 들어서는 '남도화단'이라 할 만한 뚜렷한 지역특색이 형성된 곳이다.

호남서화의 부흥은 한 때의 역사가 아니다. 20세기 화가들 중에도 이 지역 출신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한국 서양화의 인상주의 화풍을 이끈 오지호, 한국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한국 최고의 여류화가라 할 수 있는 천경자 등이 모두 이 지역 출신이다. 현재도 광주가 비엔날레 국제전의 개최지로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비록 형식은 달라졌지만 호남지역이 어느 곳 보다도 회화미술을 발전시켜왔던 바로 그 전통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주거문화의 변화로 자개농들이 현대식 가구로 바뀐 것처럼 집집을 장식하던 고서화의 자리는 서양화가 대신하게 되었다. 뒷자리로 물러난 옛 그림들 중 몇몇 유명화가들의 작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된 다행스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작가들의 작품은 먼지를 쓴 채 집안 어딘가에 모셔져 있거나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100년이 넘는 세월의 가치와 함께 현대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필묵의 미를 보이는 작품들도 현대의 소장 화가들이 그린 그림보다 형편없이 낮은 값에 거래되고 이마저도 찾는 사람이 없는 실태는 오늘날 고서화의 낮아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호남 고서화의 역사와 의미는 고령의 전통서화가나 소장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알고 있을 테지만 그 분들마저 안 계시는 때가 오면 우리의 귀중한 옛 그림의 자취마저 없어져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고서화에 대한 각종 자료 정리가 절실한 이유이다.

허건 작 '삼송도' 〈남농기념관 소장〉

전통서화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수많은 서화가를 배출한 고장으로서의 자부심에 비해 그들에 대한 조사·정리 그리고 연구 또한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윤두서, 허련, 허백련, 허건 등 유명한 화가들은 그런대로 연구되고 있지만 그 외의 수많은 서화가들은 이름도 그 작품들도 묻혀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서화작품들을 가능한한 한데 모아 정리하고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원작품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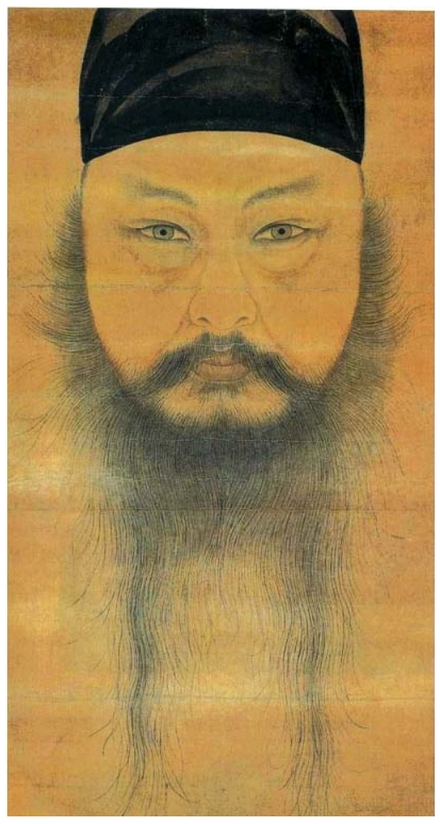
공재·소치·석정… 눈부신 '남도화단'
2년간 71명 900여점 콘텐츠화 작업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단' '고서화팀'에서는 호남 서화가들의 작품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DB화하고 있다. 출판된 각종 전시도록이나 소장품 도록, 연구서 등 문헌조사를 통해 작가와 작품의 소재를 파악하고 각 작가의 작품은 사진촬영하거나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작가에 대해서는 기 연구된 자료를 참조하여 생애와 작품경향, 사승관계 등을 정리하였으며, 각 작품들은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간단한 작품설명을 한 후 작품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문헌과 함께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현재 호남의 서화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자신의 소장품 일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소장품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호남서화는 더욱 작은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지난 2년 동안 조사하여 정리한 작가는 총 71명이며 그들의 작품 900여점에 대한 콘텐츠화작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조선시대와 근대 호남화가의 작품을 추가로 정리하면서 호남서예가 30여명에 대한 500점 정도의 작품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2·3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근현대 서양화 자료정리 작업이나 호남서화가 구술자료 정리 작업 등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윤두서 작 '자화상' 〈녹우당 소장〉

모아진 서화자료는 가공하여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찾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호남서화사이버박물관'을 꿈꾸고 있다.

이번 '호남 서화'에 대한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작업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회화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화가를 배출하고 전통서화의 맥을 이어온 고장 호남의 의미를 부각 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w.honamculture.or.kr)

/글=이선옥 lsosun@hanmail.net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한국미술사 전공〉

지방지(地方誌)

"도련지 1속은 7냥이고 유첩 1속은 6냥, 계목지 1속에 4냥, 유삼지 1속에 4냥, 입모지 1속에 6냥, 시지 1목에 10냥, 정초지 1속에 4냥, 명지 1속에 8냥, 백선지 1속에 1냥이니 황룡사에서 본값을 주고 떠드리고 청지 1속과 옥생지 1속, 흑지 1속이 각 3냥에 벼 10말을 첨가하여 모군을 시켜 사드리는데 종이 무게 7근에 2냥으로 하고 소피지 2속, 대피지 1속을 가봉하여 흥국사에서 사들였다"

위의 내용은 여수시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 중의 하나인 '호좌수영지' '지창(紙倉)'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그 당시에 생산되었던 종이의 종류, 1속의 가격, 유통과정 등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만하다. 이렇듯 조선시대 지방지에는 그 지방의 건치연혁, 지리, 토산, 종교, 문화, 인물, 경제, 교육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지방지(地方誌)란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의 지방 각 읍을 단위로 하여 작성된 지리지로써 편찬 대상의 범위에 따라 전국읍지, 도지, 군현지, 면지, 촌지, 동지, 진영지, 변방지 등으로 나뉘는데 도지와 군현지가 대다수를 이룬다.

지방지에는 방대한 사회적·역사적 자료가 있다. 읍지는 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풍부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지방 문화 이해의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최근 문화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호남삼강록' 석인본.

지방지 및 지방사자료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인명록, 인명사전 등을 만들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고장의 위인전, 고장의 전설 및 설화집, 여러 가지 교육자료, 혹은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관심이 저조한 분야가 '지방지' 이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 주도의 지리지 편찬사업으로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간행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대신에 각 읍단위로 수령이 중심이 되어 유력한 문중과 향촌의 뜻있는 인물들이 함께 편찬하는 이른바 사찬읍지가 등장하게 된다. 전라도에서는 '승평지'(순천), '용성지'(남원), '흥양지'(고흥) 등의 읍지가 16~17세기에 만들어졌다.

읍지는 건치연혁, 호구, 전결, 지리, 학교, 서원, 토산, 풍속, 교량, 불우, 고적, 제영 등의 편목 아래 각 지방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 그 지방의 사회구조, 관계, 재정, 민속, 인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지방지 및 지방사자료집의 수는 약 2000여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 중에 읍지류가 300여종, 향토자료집 500여종, 20세기 간행된 한글 시군지 500여종, 사찰지·사우지·향교지·서원지 500여종, 기타 200여종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방사자료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연구팀에서는 호남지방의 지방지(읍지)와 지방사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자료들 중 성책류 원문자료와 유적, 유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다. 즉 향교지, 서원지, 사우지, 마을지, 사찰지, 포구지, 산성지, 사료집(문헌집),

부·목·군·현 등 읍 단위로 작성된 지리지
인명록·위인전·설화집 등 활용 무궁무진

창의록(절의록), 삼강록, 누정지, 유적 및 유물과 관련된 문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호남광역지방지 30종에 대해 집중 해제하여 기초 DB화 하였다. 호남광역지방지는 호남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지방지로서 '조선호남지', '호남역대인물도' 등 호남을 대상으로 정리한 지방지이다.

2011년부터 해마다 전라남도 지방지 및 지방사자료 200여종씩 간략해제하고 목차를 DB화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하여 검색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연구단 자문위원인 송일기(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지 중에서 학문적,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헌 10여종을 선정하여 번역하고, 실록처럼 색인을 달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기록문화유산'홈페이지(wwww.honamculture.or.kr)

/글=안현주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특별연구원〉

이 기사는 (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